

TOGETHER Harim



램프 증후군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하여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현대인의 성향을 일컫는 용어



동화 <알라딘과 요술램프Aladdin's Wonderful Lamp>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막연하고 쓸데없는 고민거리들을
요술 램프 지니를 불러내듯 수시로 꺼내보며 걱정하기 보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소소한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며 근심을 날려보아요🧞

02	기획포커스 시사 상식 사전: 심리편 목차	14	제품이야기 이달의 신제품	20	슬기로운 MZ생활
04	트렌드 리포트 이달의 트렌드는?	15	MZ생각 하루에 시는 몇 번이나 등장할까?	21	비즈니스 잉글리쉬
06	대리점 탐방 청인푸드	16	하림인 이야기 찐 여름 여행지 모음, 여기 어때?	22	눈으로 보는 하림
08	하림 뉴스 2025년 6월	18	전국 닭 요리 목포-닭아저씨통닭	23	쉽게 보는 하림 용어 사전 이달의 퀴즈



Date of Issue

2025년 7월 1일

Publish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www.harim.com

꿀조합은 못 참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모디슈머 트렌드



꿀조합과 입소문의 영향이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다. 취향에 맞게 재밌는 조합, 재해석된 레시피를 창출해내는 모디슈머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모디슈머(Modisumer)는 'Modify'(수정하다)와 'Consumer'(소비자)의 합성어로, 제품을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모디슈머의 영향력이 강해지다보니 소비자가 기존 제품을 취향에 맞게 변형해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 기업이 이를 정식 제품으로 내놓는 패턴이 일종의 공식이 되고 있다.

모디슈머의 시작은 '짜파구리'로 볼 수 있다. 한 대학생이 창안한 짜파구리가 예능 프로그램과 영화에 보여지면서,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을 조합해 만들어 먹는 소비자가 급증했고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짜파구리가 제품으로 정식 출시됐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탄생한 대표적인 모디슈머 사례는 달고나 커피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400번을 저어 만드는 달고나 커피 레시피가 유행하자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관련 메뉴를 내놓았고, 덩달아 달고나 관련된 디저트도 인기를 끌었다.

이후 SNS로 자신만의 독특한 노하우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그게 또 다시 확산되며 나만의 레시피가 모두의 레시피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았다. 카레와 너구리를 섞은 카구리, 불닭볶음면에 치즈와 우유를 넣어 매운맛을 순화한 까르보불닭볶음면, 크림치즈에 블루베리잼을 얹은 전 남친 토스트 등 온라인을 보고 쉽게 따라하던 레시피들이 상품으로 출시되며 소비자들은 더 쉽게 꿀조합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일반 소비자 뿐만 아니라 연예인, 인플루언서가 직접 선보여 화제가 된 모디슈머 레시피도 있다. 최화정의 통오이감밥, 해외 인플루언서의 닥터페퍼+피클 콤보와 꿀떡 시리얼, 변우석의 팔도비빔면II 등은 실제 출시로 이어지거나 SNS에서 또 다른 확산을 일으키기도 했다.

모디슈머의 제품 출시 연결력이 커지다 보니 유통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경진대회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모디슈머를 공략한 콘텐츠 등을 열어 레시피 공모전 진행, 제품 구매 후 어울리는 자신만의 조합을 SNS에 인증,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브랜드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하기도 한다.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할 때 소비자에게 그 제품의 특징을 알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디슈머 제품의 경우 별다른 마케팅 전략 없이도 자연스러운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미 익숙하고 보장된 맛을 앞세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나만의 방식으로 변형해 맛보는 모디슈머 트렌드는 음료와 음식, 음식과 음식, 디저트와 음식 등 맛있는 조합을 찾아 공유하는 '푸드페어링'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만드는 경험형 소비문화, 나만의 재해석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모디슈머 현상은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제품기획자 역할을 수행하고 흐름을 선도할 모디슈머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이색 레시피를 기대해본다.

새내기자 | 김유리 대리



신뢰가 제일이다

청인푸드(주)

이청기 대표(58)는 1967년 전라남도 함평에서 태어나 1998년 목포에서 청인푸드(주)를 설립했다. 청인푸드는 하림 제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프리미엄 대리점으로, 현재 목포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 21명, 배송 차량 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협 대리점 약 50곳을 포함해 총 250여 개의 거래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연 매출은 110억 원에 달하며, 올해는 12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의 안정성과 거래처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 중인 회사이다.



대표 이청기



Q. 유통 사업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광주에 있는 A식품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는데, IMF 여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재취업도 가능했지만, 당시 목포 지역에 닭고기 유통 시장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리점 사업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배운 것이 유통이었고, 집안의 든든한 지원도 있어 큰 망설임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대 후반에 시작한 일이 어느덧 2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Q. 사장님의 사업 철학과 차별화된 영업방식은 무엇인가요?

제 사업 철학의 중심은 '신뢰'입니다.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닭고기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하림 제품은 품질이 우수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가격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래처도 있지만, 결국 다시 저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진을 줄이더라도 가격을 맞추고,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려 노력합니다. 영업 직원 없이 대표인 제가 직접 거래처를 관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고, 하나하나 전하는 제 진심이 고객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Q. 유통 대리점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사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닭고기 시세가 올라 이윤이 많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청인푸드는 현대삼호중공업 식당을 비롯해 여러 공단 식당들과 계약 단가로 거래하고 있어 시세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공단 식당은 소비기한 면에서는 유연해 재고 운영에 장점이 있지만, 수익 측면에서는 부담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감수하고 있고 여러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안정된 회사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역시 잘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Q. 하림과는 언제부터 거래를 시작하였고, 바라는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하림과의 인연은 사업 초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 대리점을 하고 싶다고 제안했고, 벌써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림은 제품력과 브랜드 인지도가 뛰어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가끔 공급 차질로 인해 결품이 생기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도 전남지점에서 발 빠른 대응해 주어 큰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대리점과 지점의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되면 금방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현재 가장 큰 고민과 향후 사업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림 프라임 대리점이 되면서 하림 제품을 100% 사용하는 만큼, 가장 큰 고민은 공급 안정화입니다. 프라임 대리점이 되며 매출은 크게 성장했고 여러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공급량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수급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구조 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로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서남부 지역에 물류 거점을 추가로 마련해 배송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물류 효율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가족이나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는 능력보다는 '사람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함께해 준 가족과 직원들 덕분입니다. 가족들도 회사의 중요한 부분을 맡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22년째 함께하고 있는 직원을 비롯해 오래 함께해 준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서로의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고맙고, 저 역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회사를 움직이는 진짜 주인공입니다.



01

여름 성수기 앞두고 농가와 상생 협력 강화
출하 현장 방문해 직원 격려 및 안전 당부



우리 회사가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파트너 사육농가와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며 동반성장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지난달 19일 이른 아침,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위치한 권원자 농장을 방문해 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협력업체인 상차반 직원들을 격려하고 생계 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정호석 대표는 본사 및 사육본부 임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음료와 수박을 전달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또한, 닭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를 대비해 현장의 계과 과 깔짚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 격려 활동에 이어 23일에는 '2025년 하림 사육농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농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정적인 농가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교류 ▲농가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모색 등 농가와 회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 회사는 이번 협의회에서 제기된 농가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경영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파트너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이 곧 하림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본격적인 성수기를 맞아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농가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은 앞으로도 사육농가와와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내기자 | 백의철 차장

02

“닭고기 요리하며 지구 환경 사랑 실천해요!”
피오봉사단 가족과 함께 쿠킹클래스 진행



우리 회사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요리 아카데미에서 소비자와 임직원 가족으로 구성된 '피오봉사단'과 함께 하림 닭고기 제품을 활용한 쿠킹클래스를 진행했다.

어린이를 동반한 '피오봉사단' 12기 가족 6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쿠킹클래스에서는 하림 '자연실록 동물복지 닭다리살'과 'IFF 닭목살' 제품을 사용해 '토마토 치킨 커리'와 '닭목살 또띠아랩'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인 데다, 특별히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요리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구성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요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요리에 활용된 '자연실록 동물복지 닭다리살'은 닭고기 중에서도 가장 부드럽고 인기 있는 부위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건강하게 자란 닭만 사용해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다. 'IFF 닭목살'은 닭 한 마리 당 한 점만 나오는 특수부위 닭목살을 가장 신선할 때 개별급속냉동(IFF)한 제품이다. 깔끔하

게 손질돼 조리가 간편하고, 아들이들하면서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다.

피오봉사단 12기 단원들은 앞서 전북 익산의 하림 스마트팩토리를 방문해 동물복지 기반의 생산 시스템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아이들은 견학 프로그램 '하림 치킨 로드(HCR) 투어'를 통해 접했던 '동물복지', 'IFF' 등 익숙한 용어가 나오자 두 눈을 반짝이며 즐겁게 요리했다.

클래스에 참여한 피오봉사단 12기 꼬꼬마인드 가족 심미래(39) 어머니는 "지난달 HCR 투어를 통해 생산 과정을 살펴본 동물복지 닭고기로 아이들과 함께 요리해 더욱 뜻 깊었다"며 "닭고기가 육류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다는 사실은 몰랐는데,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집에서 닭고기 요리를 자주 해먹어야겠다"고 말했다.

신선마케팅팀 이무열 팀장은 "하림의 동물복지 닭고기로 온 가족이 즐겁게 요리하는 쿠킹클래스는 매년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인기 프로그램"이라며 "집에서 요리하면 배달에 사용되는 일회용품 쓰레기도 줄일 수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는 일상을 통해 환경 보호를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03

상반기 리뷰 및 하반기 전략 발표회 열어
성과 분석 및 하반기, 중장기 전략 공유



우리 회사는 지난달 25일 '25년 상반기 리뷰 및 하반기/중장기 전략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회는 상반기 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목표 및 실행 계획을 통해 목표 달성, 전사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마련됐다. 발표회는 정호석 대표이사 인사이드를 시작으로 직할, 영업, 사육, 생산, 바이오, 강평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각 사업부에서는 핵심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비전 달성을 위한 폭 넓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 부문별 시장동향과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현재와 미래의 주요 지표를 리뷰하며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올해 초 여러 요인들로 쉽지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이었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실행력을 발휘하는 게 하림의 경쟁력이다"고 말했다.

이어 "잘 밀어주고 잘 이끌어주는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이 되길 바란다"며 "HBH의 생활화를 통해 강한 실행력,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식품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사내기자 | 정진 사원

04

'Prime The Next' 발대식 성료... 대리점과 상생 협력 강화
프라임 대리점의 2세 경영인들을 차세대 리더로 육성

우리 회사가 Prime 대리점과 장기적 동반성장을 위해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 'Prime The Next'를 공식 출범하고, 지난달 24일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Prime The Next'는 우리 회사의 핵심 파트너인 Prime 대리점 2세 경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본사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1기에는 (주)에덴, (주)네오폴드 등 총 8개 Prime 대리점 2세 경영인들이 선정되었다.

발대식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우리 회사의 중장기 방향성과 하반기 신제품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참가자들은 HCR(하림치킨로드) 투어, 신제품 시식회, 외부 전문가 초빙 강연, 자유 토



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우리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실무 역량을 다졌다.

우리 회사는 'Prime The Next'를 일회성 행사를 넘어 체계적인 동반성장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기 모임을 통해 우수사례(BP)를 공유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외부 강사 마케팅 교육 지원 ▲신제품 개발 협업 ▲사내 전문가 교육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역량 강화를 도울 예정이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Prime The Next'는 대리점과 본사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중요한 동반성장 전략의 일환"이라며, "차세대 경영인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내기자 | 백의철 차장

05

육가공부문, 지역별 대리점 간담회 열어 소통 강화
가공공장, 대리점 스킨십 행사 진행



우리 회사 가공공장은 지속적인 대리점 스킨십 행사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대리점 간담회는 지난 5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난달 17일 호남지역, 19일 경남지역에서 진행했다. 이번 달에도 경북지역과 충청지역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대리점 애로사항 청취, 시장 경기상황 공유 등 더 나은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대리점사업부(가) 박상협 사업부장은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처리방안과 지원책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간담회를 자주 마련해 올바른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내기자 | 남다빈 사원

06

‘글로벌 학생과학캠프’ 맞손...미래 과학자 꿈 응원
전북 초·중학생 24명, 싱가포르서 첨단 과학기술 체험하며 글로벌 시야 넓혀



우리 회사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하 전북과학교육원)과 함께 진행한 ‘2025 글로벌 학생과학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캠프는 지난달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간 싱가포르에서 진행됐으며, 전북 도내 초·중학생 24명이 참가했다. 글로벌 학생과학캠프는 우리 회사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후원하는 사회공헌 장학 사업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진행된 1회 캠프에 사업비 3천 만 원을 후원한 데 이어, 올해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캠프 참가 학생들은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뒤, 서류 심사와 캠프·면접 등 2단계의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과학 분야의 재능과 열정을 인정받아 최종 선발됐다. 캠프 기간 학생들은 싱가포르의 첨단 과학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직접 체험했다. 마리나 베라지 싱가포르 지속가능성 갤러리(Sustainable Singapore Gallery)에서 ESG 정책을 배우고, 사이언스 센터에서는 다양한 과학 원리를 탐구했다.

특히, 현대자동차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는 스마트팜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보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위상을 실감했다. 또한, IB 명문 학교인 OWIS와 세계적 명문대인 난양공대(NTU)를 방문해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고 로봇 특강을 듣는 등 미래 교육의 방향을 경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캠프에 참가했던 한 학생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해외 체험학습보고회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과학을 체험하며 과학자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다”며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캠프를 마치게 되어 기쁘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과학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새내기자 | 백의철 차장

07

새만금환경생태단지 행사에서 환경의 날 푸드트럭 운영 다회용기 사용으로 친환경 실천

우리 회사가 지난달 1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환경생태단지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 및 새만금환경생태단지 개장 3주년 맞이 행사'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푸드트럭을 지원하며 ESG 경영을 실천했다.

이번 푸드트럭 지원은 국립공원공단의 환경 보전 노력에 동참하여 우리 회사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난 2월 국립공원공단 및 전북지방환경청과 체결한 'ESG 활동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회사는 이를 통해 새만금환경생태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생태단지의 가치 전달과 환경보전 노력 홍보에 기여했다.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 및 새만금환경생태단지 개장 3주년 맞이 행사'는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일원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행사에는 전북지방환경청장, 공단 이사장, 전북도지사, 부안군수 등 주요 내빈 및 하림 관계자가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야외무대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성악, 뮤지컬 넘버 커버, 퓨전국악, 극단 우주선의 환경 주제 정크아트 뮤지컬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진행되었다. 또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국립공원 이동탐방안내소를 비롯한 각종 체험버스, 전북도 수질환경 캠페인, 국립공원 사진전, 동양화 및 조류 모형 전시 등 풍성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우리 회사는 새만금환경생태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했다. 대표 인기 제품인 용가리치킨, 누룽지순살치킨, 텐더스틱 등을 제공하는 '무료 시식회'를 진행해 약 2000여명의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시식회는 환경의 날 행사의 의미를 살려 기념품으로 제공된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제공하고, 사용한 다회용기는 재활용하여 일상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쓰레기 없는 친환경 행사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는 하림의 ESG 경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지속경영팀 정종원 대리는 "환경의 날 및 새만금환경생태단지 개장 3주년을 맞아 열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하림의 맛있는 제품을 나누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함께 되새길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며 친환경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내기자 김유리 대리

08

하림, '사랑의 헌혈'로 생명 나눔 실천 14년째 이어진 헌혈 캠페인, 임직원 자발적 참여로 이웃사랑 실천

우리 회사가 3분기를 맞아 지난달 30일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며 이웃사랑과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부족해지는 혈액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림의 헌혈 캠페인은 1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날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헌혈 버스 1대를 지원받아 (주)하림 본사에서 진행됐다. 하림은 본사 캠페인을 시작으로, 추후 일정을 조율해 정읍공장, 사육본부에서도 헌혈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헌혈에 참여한 한 사원은 "입사 후 처음으로 회사 동료들과 함께 헌혈에 동참했는데, 좋은 일을 함께하니 더욱 뜻깊고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도 이런 나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림은 지난 2017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분기별 1회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행사 취지에 공감하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며, 매 분기 약 50~70여 명의 임직원이 헌혈에 참여한다. 헌혈과 함께 기부된 헌혈증서는 긴급 수혈이 필요한 백혈병 아동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혈액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헌혈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



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상생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림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학생과학캠프 후원 △초등 장학금 도서지원 사업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 참여 및 후원 △하림피오 봉사단 운영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새내기자 백익철 차장

09

흑서기 대비 농가 환기 강의 실시
전문성 강화로 피해 최소화 총력

우리 회사 사육사업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흑서기 생산성 유지 및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18일, 사육사업부 종계팀은 계약농가 22곳, 임직원 30명을 대상으로 '흑서기 환기 관리 특별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를 높아지는 기온으로 인한 육계, 종계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과학적인 환기 관리를 통해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흑서기 환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적절한 유속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종계1팀 최영욱 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흑서기 환기 관리의 중요성, 환风量 및 유속 계산법, 쿨링 설비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흑서기가 다가오면 걱정이 앞서는데, 막연하게 생각했던 유속의 중요성과 적절한 환风量 확보 등 핵심 노하우를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며 "효율적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현성 사육본부장은 "매년 반복되는 흑서기 피해는 농가와 기업 모두에

게 큰 손실을 야기한다"며, "농가들이 각 농장에 맞는 환风量과 유속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스스로 흑서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도 계약농가와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생을 실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회사 사육사업부는 상생 경영을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내기자 | 강승헌 사원

10

여름철 전기사고 빨간불 막기 위해 총력
잠재적 위험 요소 제거 매뉴얼 제작 배포



(주)하림 농가 전기시설 관리 준수사항 하림

경보기

● 전기 시설은 100V 전압 이상 전압 회로에 속하는 모든 회로를 포함하여 관리

● 화재 위험 회로를 화재 위험 회로로 표시하고 화재 위험 회로에 대한 화재 위험 회로 표시를 실시

● 화재 위험 회로 표시는 화재 위험 회로에 부착하고 — 화재 위험 회로 표시는 화재 위험 회로에 부착하고 화재 위험 회로에 대한 화재 위험 회로 표시를 실시

차단기 관리

● 화재 위험 회로에 대한 화재 위험 회로 표시를 실시

● 화재 위험 회로에 대한 화재 위험 회로 표시를 실시

● 화재 위험 회로에 대한 화재 위험 회로 표시를 실시

비상발전기

● 비상발전기 관리

● 비상발전기 관리

● 비상발전기 관리

우리 회사 사육사업부가 육계 사업 농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사육사업부는 농가 내 전기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장치인 경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사적 점검 및 교육 활동을 통해 농가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관리자들은 경보기 설정 온도, 경보 발생 이상 유무, 문자서비스 등록 여부 등 꼼꼼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정전, 온도 이상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개선, 수리 독려, 사고 발생 가능성 선제적 차단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 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농가에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기시설 관리 준수사항 포스터'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포스터에는 경보기, 분전함, 차단기, 비상발전기 등 주요 전기 시설별 관리 및 유의사항이 상세히 정리될 계획이다. 이는 농가들이 자체적 전기 안전 점검 실시,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현 사육사업부장은 "단 한 번의 전기 사고도 농가에는 치명적인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점검 활동을 통해 농가들이 전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통해 안전한 사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내기자 | 강승헌 사원

11

온열질환 대응 위해 사전예방 힘써
정읍공장, 쿨링시트 등 지급



우리 회사 정읍공장이 폭염을 앞두고 온열질환 예방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 16일 정읍공장은 직원들에게 포카리스웨트 분말, 식염포도당, 즉석 냉찜질팩, 쿨스프레이 등으로 꾸러진 폭염예방 쿨링시트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쿨링시트 사용법을 교육하고 갑작스런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쿨링시트는 폭염으로 인한 체온상승환자 발생 시 체온을 빠르게 낮출 수 있어 신속한 처치가 가능하다.

차대진 정읍공장장은 “온열질환은 응급대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다”며 “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새내기자 | 김해진 과장

12

남원시와 투자선도지구 상호협력 MOU 체결
공공기관·스마트팜 연계.. 식자재 활용 협력 강화



우리 회사는 지난달 24일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내 상호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 공모사업인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 기업과의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과 지역 연계 방안 등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 회사와 남원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투자선도지구 조성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의 구체화와 실현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회사는 남원시의 투자선도지구 조성 방향에 공감하며,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에 위한 전략적 협력 ▲푸드서비스(FS) 및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 ▲남원 스마트팜 및 지역 농산물의 우선 사용 ▲지역 인력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남원시와 상호 협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 상주 인력과 관내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급식 서비스 체계 구축과 지역 식자재 활용 확대,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유통망 연계 방안 등에 대한 협력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지역 내 다양한 산업군과의 연계 가능성이 기대된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남원시의 정책 방향과 미래 비전에 공감하며, 다양한 협력의 여지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하림은 지역사회와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 위한 상생과 협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NEW!

‘동물복지 IFF 한입씩 닭가슴살’ 신제품 2종 출시 트러플맛, 스위트 바비큐로 라인업 확장



동물복지 IFF 한입씩 닭가슴살

우리 회사가 ‘동물복지 IFF 한입씩 닭가슴살’의 인기에 힘입어 신제품 2종(△트러플맛 △스위트 바비큐)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장했다.

‘동물복지 IFF 한입씩 닭가슴살’은 100% 국내산 닭가슴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한 다음 영하 35°C 이하에서 40분간 개별 급속 동결하는 ‘IFF(Individual Fresh Frozen)’ 공법으로 부드럽고 촉촉한 육질을 살린 제품이다.

최소한의 양념으로 신선한 닭가슴살 고유의 풍미를 끌어올린 ‘오리지널’ 맛과 청양고추의 칼칼함을 더한 ‘청양고추’ 맛이 꾸준한 사랑을 받는 가운데, ‘트러플맛’과 ‘스위트 바비큐’ 두 가지 제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동물복지 IFF 한입씩 닭가슴살 트러플맛’은 송로버섯 특유의 깊고 향긋한 풍미를 담았으며, ‘동물복지 IFF 한입씩 닭가슴살 스위트 바비큐’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새콤달콤한 바비큐 소스를 입힌 제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건강하게 키운 닭고기를 사용해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100g 당 약 2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의 균형 잡힌 식단에도 제격이다.

마케팅팀 관계자는 “동물복지 IFF 한입씩 닭가슴살’이 조리 쉽고 여러 요리에 활용하기도 좋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새로운 맛을 추가로 선보였다”며 “입맛도 기력도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 다채로운 맛의 ‘동물복지 IFF 한입씩 닭가슴살’로 건강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림X맥시칸 즉석조리 크리스피 닭다리 출시 하림X맥시칸 즉석조리 크리스피 닭다리 출시 치킨플레이션에 따른 부담 없는 제품 선보여



맥시칸 크리스피 닭다리

우리 회사 CVS사업팀은 지난달 5일 GS25에 맥시칸 크리스피 닭다리를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GS25 자체 즉석 치킨 브랜드인 ‘치킨25’와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배달 치킨값이 3만원에 육박하는 등 ‘치킨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성비 편의점 치킨에 대한 고객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협업은 1인 가구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가격과 맛, 품질을 강화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CVS사업팀 김경환 과장은 “계속되는 치킨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었다”며 “집 앞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고객들에게 큰 혜택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내기자 | 남다빈 사원

내가 AI를 쓰는지,
AI가 나를 쓰는지 판단이 필요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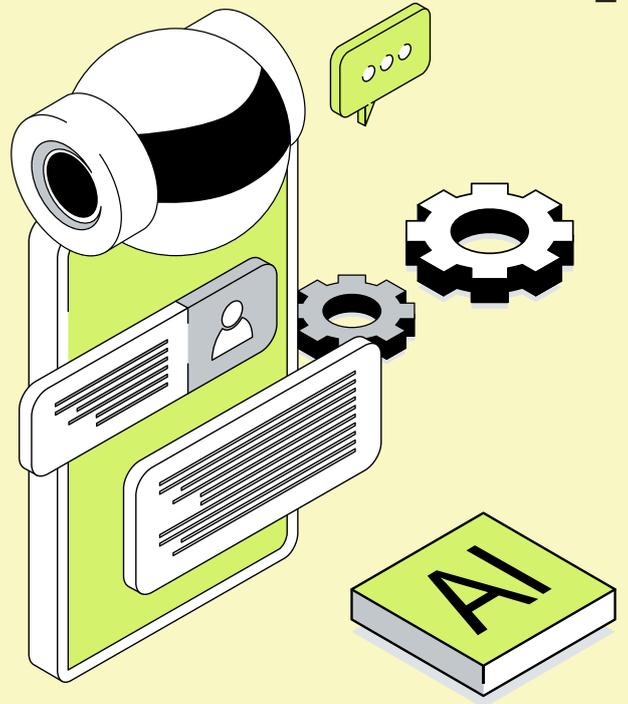
나의 하루에 AI는 몇 번이나 등장할까?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챗GPT로 부수입 만들기’, ‘AI를 활용한 자동화 창업 비법’ 같은 광고 문구가 하루에도 여러 번 눈에 띈다. 정작 나오는 거리가 먼 이야기, 특별한 세계의 얘기처럼 느껴진다. ‘AI가 대체 뭐길래,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까?’ 내 일 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 문득 궁금 해진다. 내가 정말 AI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걸까? 하루 동안 생활 속 AI 등장 횟수를 직접 세어봤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놀라웠다. 아침 6시, 스마트폰 알람을 끄는 순간부터 AI는 이미 내 일상에 함께하고 있었다. 날씨 앱은 오늘 기온과 옷차림 팁을 알려주고,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지도 앱으로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한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추천하고, 멜론은 내 취향에 맞는 신곡을 큐레이션한다. 회사에 도착하면 메일함을 정리하고, 일정 알림을 받는다. 회의 자료 초안은 챗GPT에게 아이디어를 묻고, ppt 디자인은 AI 툴을 활용해 빠르게 완성한다. 보고서도 AI 덕분에 훨씬 수월하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넷플릭스가 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 해주고, 배달 앱은 ‘오늘의 메뉴’를 상단에 띄워준다. 온라인 쇼핑 을 할 때도 ‘당신을 위한 추천 상품’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하루를 돌아보니, AI가 내 일상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순간이 열 번이 넘는 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걸까, 어느새 ‘의존’하고 있는 걸까?

이전엔 AI가 먼 기술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생활 습관처럼 우리 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딥러닝(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AI 기술)의 발달로, 처음엔 내가 AI를 도구처럼 썼지만 어느새 AI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존재가 되어 나를 이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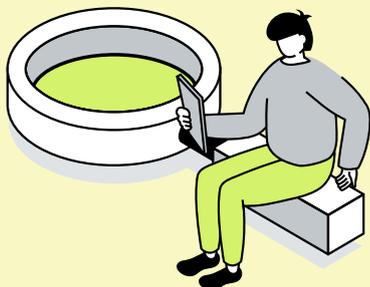
있다. 추천 알고리즘이 골라주는 콘텐츠를 무심코 소비하고, 스스로 고르는 대신 ‘이게 낫겠지’ 하는 AI 판단에 익숙해진다. 편리함은 분명 큰 장점이다. 시간에 쫓기는 우리에게 AI는 훌륭한 어시스턴트 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서, 우리는 ‘나만의 선택’, ‘나만의 기준’, ‘나만의 고민’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반면 어떤 사람들은 AI로 부수입을 만들고, 자동화 창업을 하고 있다. 그들은 AI에 의존 하는 게 아니라, AI를 철저히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결국 AI는 도 구일 뿐이고, 중요한 건 ‘내가 AI를 어떻게 쓰느냐’다.

MZ세대는 ‘AI와 함께 살아가는 첫 세대’다.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은 MZ의 강점이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 다. “내가 사는 하루는 정말 내가 만든 걸까?” “AI가 제안한 것과 내가 선택한 것 사이에서, 나는 얼마나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까?” “편리함을 활용하되, 나만의 기준은 지키고 있는가?” AI는 앞 으로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술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중심의 사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AI와 어떤 거리에서 함께해야 할까?

그래서 나는 몇 가지 작은 원칙을 정해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문장은 반드시 내 말로 다시 다듬고, 추천 콘텐츠에만 의 존하지 않고 직접 찾아보기도 한다. AI가 제안한 아이디어도 한 번 더 브레인스토밍해서 내 언어로 전환하고 점검한다. 이 습관들이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내가 AI를 쓰는지, AI가 나를 쓰는지’ 를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준다. 결국 중요한 건 AI가 얼마나 똑똑하 냐가 아니라, 내가 그 도구를 얼마나 주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활용하느냐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에 AI가 몇 번 등장했는지 한번 돌 아보자. 그 순간순간의 선택은 정말 ‘내 것’이었는지 말이다.

단백질사업팀 손혜련 사원



찐 여름 여행지 모음, 여기 어때?!

김유리 대리 홍보팀



<뽀로로 테마파크>



<아침미소목장>

이번 여름, 아이와 함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제주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제주도에서는 이 두 곳은 꼭 둘러보셔야 해요. 바로 뽀로로 테마파크와 아침미소목장!

먼저, 뽀로로 테마파크는 일정이 짧더라도 최소 반나절은 머무를 걸 추천해요. ‘아이에게 천국이 있다면 바로 뽀로로 테마파크가 아닐까?’ 싶은 순간이었어요. 입장하자마자 눈빛이 반짝이더니, 메인 공연을 볼 땐 황홀한 표정으로 넋을 놓더라고요. 뽀로로와 타요가 놀이 기구로 변신한 공간은 아이는 물론 엄마, 아빠에게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놀 거리가 워낙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어요. 다만 공연 관람은 세 번 이상, 놀이 기구는 무한 반복이니... 엄마, 아빠 체력 단단히 챙기고 가세요!

아침미소목장은 힐링 그 자체예요. 송아지에게 우유도 주고, 신선한 아이스크림과 카이막을 맛보고, 탁트인 목장까지 시원하게 펼쳐지는데, 그 순간 ‘이래서 제주도가 특별하구나’ 싶었어요.

제가 애정하는 제주도 맛집은 ‘고집돌우럭’이라는 곳이에요. 우럭조림도 일품인데, 3~5세 아이들에겐 선착순으로 무료 어린이 밥상도 제공돼요. 버터에 구운 전복과 새우, 블루베리를 문돌고래 모양 바나나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 입가에 미소가 끊이질 않아요 ㅎㅎ

아이가 생기고 나서 좋아하던 많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여행이었어요. 지금은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은 예전과는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어 이제는 더 자주, 더 많은 순간을 함께해보려고 해요. 이번 여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라요!

박동주 사원 품질관리팀



<신두리 해안사구>

여름엔 바다지!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여름 여행지는 아름다운 해변과 황홀한 노을을 즐길 수 있는 충청남도 태안이에요.

먼저 소개하고 싶은 곳은 제가 꿈꿨던 보물 같은 명소, ‘신두리 해안사구’예요.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나?’ 하는 놀라움이었어요. 탁 트인 모래 언덕과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죠. 특히 사막처럼 펼쳐진 풍경 너머로 바다가 동시에 나타나는 순간은 정말 경이롭고도 인상 깊었어요. 마치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어딘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독특한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쉽지 않을 때, 색다른 자연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현대인들은 육류 위주의 식단이나 기름진 음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가끔은 속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태안의 ‘태성추어탕’은 속 편하고 깊은 맛의 자연식 한 끼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뜨끈한 추어탕에 돌솥밥, 고소한 누룽지까지 곁들이면 한 끼가 든든하고 포근하게 마무리돼요.

태안 여행 중 속 편한 집밥이 생각날 때면 종종 찾게 되는 단골 같은 곳이에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다 보면, 낯선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감정들을 느끼며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여행은 결국 스스로를 회복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예전에 다녀왔던 장소를 떠올리며 그때의 감정과 소중했던 순간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추천한 이곳이 누군가에게도 잠시나마 위로와 웃음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라요.

정윤철 사원 총무팀



<제주월드컵경기장>

국내 여행지 가운데 진정한 '여행지'라는 느낌을 주는 곳은 단연 제주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K리그 전북 현대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주 원정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비행기까지 타고 먼 길 간 김에 제발 지지만 않았으면 했는데, 다행히 결과는 무승부! 게다가 현재 1위로 올라가는 데 결정적인 승점을 따낸 첫 경기라 그런지, 전혀 아깝지 않은 여행이었어요.



<성읍 녹차동굴>

평소 초록색을 가장 좋아하는데, 제주도 명소 중 '성읍 녹차동굴'은 정말 초록의 천국이었어요. 눈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싱그러운 풍경에 계속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드넓게 펼쳐진 녹차밭과 독특한 형태의 동굴이 이색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이번 여행 취지가 'P의 여행'이어서 즉흥적으로 들르게 된 곳이었는데, 안 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꼭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드려요!

혹시 내장탕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랑해요. 제주 '함덕골목'은 내장탕과 해장국, 단 두 가지 메뉴만 있는 집이에요. 선택지는 적지만 맛은 확실하답니다. 담백하고 개운한 맛을 원하신다면 내장탕, 얼큰하고 칼칼한 맛이 당긴다면 해장국을 추천드려요. 다만, 초록병의 유혹이 강력하니 운전하실 분들은 차는 잠시 놓고 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에게 여행은 삶의 작은 낙이에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어렵다'는 말처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가끔 떠나는 여행이 오래도록 힘이 되어주고, 다시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기쁨과 행운이 가득한 7월 보내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성수기에도 모두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박종광 사원 네이처델리개발팀



<자연에머물다>

자연과 어울려 글램핑을 즐기기가 좋고, 춘천의 명물인 닭갈비와 막국수, 전통시장 먹거리까지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춘천을 추천합니다!

춘천은 산이 많고 계곡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글램핑을 즐기기도 안성맞춤이에요. 캠핑은 해보고 싶지만 장비를 새로 갖추기엔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글램핑장이 제격이죠. 그중에서도 '자연에머물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인 캠핑 도구들은 물론이고, 아늑한 숙소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편안하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요. 추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 보니 수영장, 놀이시설, 체험장 등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캠프파이어였어요. 요즘 말로는 '불멍'이라고 하죠? 따뜻한 불 앞에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그 순간이 행복 그 자체였어요.



<레고랜드>

다음은 레고랜드예요! 사실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라 추천을 망설이기도 했지만, 아이가 있는 분이라면 꼭 한 번쯤은 가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아이가 없어도 충분히 즐겁게 놀 수 있을 만큼 즐길 거리가 가득했답니다. 놀이 기구부터 워터파크, 다양한 체험장까지 다채로운 공간 덕분에 하루가 정말 알차했어요.

여행을 하며 계획대로 흘러가는 순간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순간도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된다고 생각해요. 추억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기억이니까요.

이번 인터뷰를 하며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저도 모르게 웃으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김치와 닭강정의 반전 케치
‘목포 닭아저씨 통닭’

식도락 여행자리면 한 번쯤 반할 수밖에 없는 도시, 전남 목포. 낙지 탕탕이, 홍어처럼 강렬한 향토 음식이 유명하지만, ‘닭강정’도 결코 빠질 수 없는 인기 메뉴다. 특히 목포 중앙시장 근처에 있는 ‘닭아저씨통닭’은 닭에 진심인 사장님이 만든 이색 조합 닭강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바로, 닭강정과 김치의 만남이다.



<대표 메뉴>

- 순살 목은지 닭강정
- 순살 파김치 닭강정
- 순살 열무 닭강정
- 오곡후라이드

<정보>

위치: 전남 목포시 원산중앙로37번길 2
 전화번호: 061-274-9209
 편의시설 및 서비스: 배달 가능, 포장 가능, 운영 시간 유동적





한국인의 서울푸드 ‘김치’와 닭강정의 놀라운 만남

이 집의 포인트는 바로 다양한 김치와 닭강정의 조합이다. 듣기만 해도 묘하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지만, 막상 먹어보면 놀라운 시너지를 보여 준다.

먼저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인 ‘묵은지 닭강정’은 잘 익은 묵은지를 씻어 닭강정 위에 고명처럼 올린다. 묵은지 특유의 깊은 맛과 산미가 닭강정의 달콤함을 잡아 주며, 물리지 않는 감칠맛을 더해 준다.

두 번째 메뉴 ‘파김치 닭강정’은 고춧가루 양념이 된 파김치가 올라가 있어 파닭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듯 하다. 파의 아삭함과 매콤함이 닭강정의 느끼함을 잡아 준다. 파닭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조합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

마지막 메뉴 ‘열무 닭강정’은 열무의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 닭강정과 의외로 잘 어울린다. 이 메뉴는 여름에만 만날 수 있는 시즌 한정판으로 열무 철에 맞춰 잘 찾아가야 한다.

기본기도 잡은 바삭한 닭강정

2003년부터 시작된 닭아저씨통닭의 룩런 비밀은 누구보다 닭에 진심인 사장님의 영업 마인드 덕분이다.

닭강정에 사용되는 부위는 국내산 정육(다리살)으로, 찝찝함 없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

또한 닭강정에 올라가는 모든 김치는 사장님과 가족이 직접 담근 수제 김치로 그 정성과 맛은 단순한 고명이 아니라 별미 그 자체다.

튀김옷은 얇고 바삭한 스타일인데 일반 닭강정처럼 소스에 버무리는 대신, 바삭함을 살리기 위해 소스를 위에 뿌리는 방식을 택했다.

닭강정 소스는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담긴 특제 비밀 레시피로 살짝의 매콤함이 느껴지지만 아이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매콤달콤한 맛이다. 소스의 비밀은 아쉽게도 사장님만 아는 탑시크릿이라고 한다.

평범한 닭강정이 이렇게 다채로울 수 있구나 하고 놀라게 되는 집. 한 입 베어 물면 정성, 아이디어, 재미까지 꽉 찬 맛이 느껴진다.

정겹고 따뜻한 도시 목포에서 눈으로 한번, 입으로 두 번 즐기는 닭강정을 찾고 있다면?

‘닭아저씨통닭’,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다.



(회사 내 MZ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익명으로 담았습니다)

7월, 충전이 필요한 MZ MZ들의 나답게 쉬는 방식!"

우리 회사 MZ들은 여름휴가를 어떻게 보낼까요? 일도 삶도 다시 잘 굴러가기 위해, 잠시 멈추는 법을 아는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휴가 땀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누군가에게 딱딱하게 짜인 일정이 완벽한 여행일 수 있지만, 저는 일부러 아무 계획 없이 떠나는 걸 좋아해요. 숙소만 정해두고 도착해서 느껴지는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카페를 가든, 그냥 걷든, 아무 것도 안 해도 그게 또 좋더라고요. 일상에선 항상 계획과 마감에 쫓기다 보니, 휴가만큼은 '즉흥'과 '느긋함'을 나에게 허락하고 싶어요. 어쩌면 그런 무계획 속에서 진짜 나답고 편안한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2. 혼자만의 여행, 완전 강추합니다

예전엔 혼자 여행 간다는 게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혼자여서 가능한 경험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음 내키는 대로 일정을 바꾸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 오래 머무르고, 누구와도 타협할 필요 없는 자유로움. 여행지에서 조용히 커피 마시며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들이 저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혼자 여행을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정말 강추합니다!

3. 일상 탈출 대신 '루틴 업그레이드'를 택해요

'여행은 꼭 어딘가로 가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난 지 오래됐어요. 저는 오히려 익숙한 공간에서 내가 놓치고 살던 루틴들을 다시 정비하는 시간을 더 좋아하거든요. 평소엔 시간이 없어서 미뤄뒀던 운동이나 요리, 아침에 천천히 눈을 뜨는 여유 같은 것들이 제겐 최고의 재충전이에요. 그렇게 나의 일상을 조금 더 단단하고 정성스럽게 만드는 게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휴가입니다. 몸도, 마음도 정리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4. 신나는 액티비티로 스트레스를 확 날려요

저는 원래 액티비티를 정말 좋아해요. 등산, 서핑, 캠핑 같은 야외 활동뿐만 아니라 줘라인이나 번지점프처럼 짜릿한 경험도 좋아하죠. 그런데 평소에는 회사 일과 일상생활에 치여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좋아하는 활동들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휴가가 되면 그동안 미뤄뒀던 액티비티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확 풀고자 합니다. 휴가 동안 신나게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일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활력이 휴가를 통해 되살아 난달까요?



5. 휴가도 결국 '회복'이 목적이예요

예전엔 유명한 곳, 멋진 풍경을 쫓아 다녔는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 '내가 정말 쉬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행이 끝난 뒤에 오히려 더 지치고 피곤하면 그건 성공한 휴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가를 계획할 때 '무엇을 할지'보다 '어떻게 회복할지'를 먼저 고민해요. 조용한 곳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있어도 괜찮아요. 쉬는데도 기준은 없고, 오직 나만의 리듬이 있을 뿐이니까요.

초보자도 할 수 있다!

프로처럼 준비하자!
클라이언트 미팅 완전 정복

<미팅 준비 기본 샘플>

Jane: Hey Mike, we have a client meeting next week.
(A) How should we prepare?

Mike: First, (A) let's set the agenda. What key points do we need to cover?

Jane: We need to present our progress, discuss their feedback, and propose the next steps.

Mike: Sounds good. (B) You can handle the progress update, and I'll take care of the next steps.

Jane: Got it. (C) I'll also prepare some key data points for the discussion.

Mike: Perfect. (C) Let's schedule a rehearsal before the meeting.

Jane: Oh, Should we also prepare a short summary slide for each topic?

Mike: Yes, that'll help keep the meeting focused and clear.

Jane: Great. I'll draft the slides and share them with you by Thursday.

제인: 마이크, 다음 주에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마이크: 먼저 아젠다를 정해야 해요. 어떤 주요 내용을 다뤄야 할까요?

제인: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클라이언트 피드백을 논의한 후 다음 단계를 제안해야 해요.

마이크: 좋네요. 제인이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저는 다음 단계를 설명할게요.

제인: 알겠어요. 논의를 위해 주요 데이터를 준비할게요.

마이크: 좋아요. 미팅 전에 리허설을 한 번 해보죠.

제인: 아, 각 주제별로 간단한 요약 슬라이드도 준비할까요?

마이크: 네, 그러면 회의가 더 명확하고 집중있게 진행될 수 있겠어요.

제인: 좋아요. 제가 슬라이드를 초안 작성해서 목요일까지 공유할게요.

<미팅 준비 기본 샘플>

(A) 미팅 준비 시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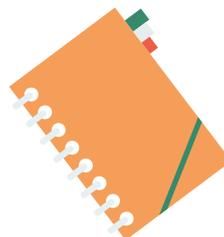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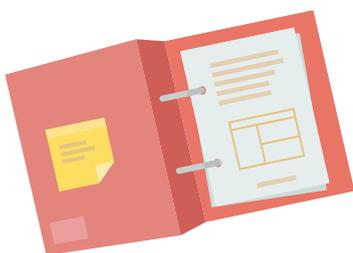
How should we prepare for the meeting? (미팅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Let's set the agenda first. (먼저 아젠다를 정합시다.)
Let's review the meeting goals together. (회의 목표를 함께 검토해봅시다.)
Do we have all the materials we need? (필요한 자료는 모두 준비됐나요?)

(B) 역할 분배 및 논의하기

You can handle [task], and I'll take care of [task]. ([업무]는 네가 맡고, [업무]는 내가 맡을게요.)
We need to present [topic] and discuss [topic]. ([주제]를 발표하고, [주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Who's leading each section of the presentation? (발표 각 파트는 누가 맡나요?)
Let's split the tasks to save time. (시간을 절약하려면 업무를 나눕시다.)

(C) 회의 자료 준비하기

I'll prepare key data points for discussion. (논의를 위한 주요 데이터를 준비할게요.)
I'll send you the draft by [day/time]. ([요일/시간]까지 초안을 보낼게요.)
Let's double-check the numbers before presenting. (발표 전에 수치를 한 번 더 확인하죠.)
Let's schedule a rehearsal before the meeting. (미팅 전에 리허설을 잡죠.)
Should we create summary slides for each topic? (각 주제별 요약 슬라이드를 만들까요?)



눈으로 보는 하림

2025년 6월의 주요행사 모습입니다.
지난 추억들을 살펴보세요



우리 회사는 지난달 2일, 26일 신입사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2일 우리 회사 환경관리팀 정창호 팀장이 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10일 한국은행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16일 우리 회사는 논산훈련소를 방문해 민군 협력관계 유지 및 상생 방법을 모색했다.



우리 회사의 신선한 닭고기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는 HCR 투어 누적방문객이 77,777명을 돌파했다. 돌파 기념으로 한 주간 견학객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달 27, 28일 2025년도 One-ERP 임원 워크숍이 열렸다.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삼계탕, 백숙으로 물보신!
30도를 넘는 무더위 기승엔 뜨끈한 삼계탕으로 기력 회복, 영양 보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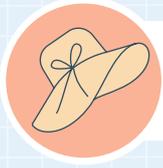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러요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
단 음료는 단맛으로 오히려 갈증이 생기고, 커피나 맥주는 체내에 있는 수분을 배출시켜요



매일 기온 확인하기
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요



시원하게 지내기
외출 시 양산과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 입기



똑! 소리 나는 하림 꼬꼬사전
 용어 사전의 변이판!
 더운 나기를 위한 사전이에요



닭도 냉방이 필요해요? “닭도 더위를 타요!”




닭은 몸 전체가 깃털로 덮여 있고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고온에 매우 취약해요.

더운 환경에서는 호흡이 빨라지고, 날개를
 펼치거나 시원한 물체에 몸을 접촉시켜 체온을
 조절하고 있어요.

이때 물을 더 많이 마시지만,
 사료 섭취량은 감소해요.




여름철 실내 온도가 30°C를 넘기면
 닭의 식욕이 떨어지고,
 알을 낳는 빈도와 품질도 감소할 수 있어요.

35°C 이상에선 폐사 위험도 존재!
 (육계 기준 입추초기 계사 내부온도는 31~35°C예요.)
 사육 일령, 습도 등에 따라 적정 온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닭도 냉방이 필요해요!

고온 환경은 닭의 면역력을 약화시켜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질병에도 쉽게 노출돼요.
 여름철엔 특히 축사 온도 조절이 필수!

환풍기나 미스트 장치 등을 이용해서 실내를 시원하게 하고,
 닭들이 덜 스트레스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전용 쿨링패드를 사용해
 바닥 온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새내기자 | 이민정 대리

이달의 Quiz 퀴즈풀고 선물세트 받자!

초복 맞이 퀴즈!

일 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인 삼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복 가운데 첫 번째에 드는 복날, 2025년 초복은 언제일까요?
 초복 날짜와 함께 초복에 즐겨 먹는 전통 보양식을 맞춰 주세요!

1. 7월 20일 (일요일)

① 미역국

2. 7월 30일 (수요일)

② 곰탕

3. 8월 9일 (토요일)

③ 삼계탕

제 229호 추첨자

임* 제주시 신산마을길
 홍*백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유*석 아산시 모종남로
 차*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답 제출 방법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세트’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정답과 함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같이 적어 보내주세요.

[메일주소]
 E10202771@harim.com

배달 대신, 집에서 간편하게 하림치킨을 즐겨요



후라이드 조각치킨



후라이드 순살치킨



소이갈릭 치킨봉



소이갈릭 순살치킨



달콤양념 순살치킨



크림버터 순살치킨

맛 **가격** **조리 편리성**
까지 완벽한
하림치킨 시리즈 6종